

주요섭의 상하이 생활과 문학

[중국]최학송*

目 录

1. 서론
2. 주요섭의 상하이 행적과 의식세계
3. 기독교 부정과 민중의 삶에 대한 천착
4. 주제의 다양화와 기교에 대한 탐구
5. 결론

1. 서론

상하이(上海)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사에서 뿐만 아니라 재외 한인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해방전 재중 한인 문학을 크게 만주 한인 문학과 관내(關內) 한인 문학으로 나누어 볼 때 관내 한인 문학의 중심은 상하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전, 이광수·주요한·주요섭·김광주·최독건·피천득 등 많은 한국의 문인들은 독립운동이나 학업을 위하여 상하이에서 생활하였으며 그 과정에 적지 않은 문학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작품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손지봉으로부터 시작된 상하이 한인 문학 연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상하이 한인 문학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1) 최근 상하이에서 활동한 개별 작가들에

* 中國 中央民族大學校 朝鮮言語文學系 講師.

1) 손지봉, 『1920~193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상해의 의미』, 한국, 한국정신문화연구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요섭이나 김광주와 같은 몇몇 작가에 한정되어 있다. 2)

주요섭(朱耀燮: 1902~1972)은 상하이 한인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의 한사람이며 연구도 비교적 많이 진행된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중 첫째로 꼽히는 것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논의의 제한성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상하이 민중의 삶을 소재로 한 신경향파문학이라는 시각으로 「인력거꾼」과 「살인」을 다루는데서 멈추며 여기서 좀더 구체화되면 「첫사랑 값」까지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 물론 상기 작품들이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창작한 작품 중의 대표작임은 분명하나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니다. 상하이 시기 주요섭은 소설, 시, 희곡, 평론 등 여러 장르에 걸쳐 28편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3)

원 석사학위논문, 1988.

김호웅, 「1920~30년대 한국문학과 상해」, 『현대문학의 연구』 23호, 한국,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황춘옥,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근대소설 연구』, 한국,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상해」, 『한국언어문화』 36호, 한국,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왕팅팅, 『근대 상해 도시문화 연구-중국작가와 한국작가의 상해도시 이미지』, 한국,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양국화, 『한국 작가의 상해지역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한국,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 김종호, 「김광주론-상해 조선인 사회의 현실 비판과 자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호, 한국: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최병우,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5호, 한국, 한중인문학회, 2008.

이승하, 「주요섭 초기작 중 상해 무대 소설의 의의」, 『비교한국학』 17권 3호, 한국,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장동천, 「수필 작가 피천득의 상하이 상상과 창작의식」, 『중국어문논총』 50호, 한국, 중국어문연구회, 2011.

강지희, 「상해와 근대문학의 도시 번역」, 『이화어문논집』 29호, 한국, 이화어문학회, 2011.

3)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창작한 28편의 작품에는 소설 7편, 시 5편, 희곡 1편, 평론 8편,

이에 본고는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창작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발굴과 조명을 통하여 상하이에서의 주요섭의 의식과 문학세계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자 한다. 이는 주요섭 문학 연구 뿐만 아니라 상하이 한인 문학 연구의 활성화에도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주요섭의 상하이 행적과 의식세계

주요섭이 상하이에 간 것은 1921년이다. 3·1운동 당시 ‘흑화당(黑花黨)’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무궁화소년회’란 등사판 지하신문을 발행한 죄로 평양 유년(幼年)감옥에서 10개월을 보낼 때, 주요섭은 처음으로 상하이에 갈 생각을 하게 된다. 감옥에서 “차입 들어오는 밥을 통하여”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설립되었으며 형 주요한(周耀翰: 1900~1979)이 상하이에 갔다는 소식을 접한 주요섭은 “裁判할때까지 기다릴것도 없이 그날이 오지나 않을까”는 기대를 하게 되며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상하이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지루한 감옥생활은 계속되었으며 그 과정에 막연히 상하이로 가고자 하던 생각이 차츰 상하이로 유학을 가려는 결심으로 굳어진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청어(淸語)⁴⁾ 자습서를 반입하여 부지런히 공부한다. 1919년 11월에 출옥한 주요섭은 바로 상하이로 가고자 하였으나 “非常警戒가 몹시甚한” 관계로 우선 동경에 가서 한동안 세이쇼쿠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 1920. 10~1921. 3)를 다니다 1921년 3월 동경에서 중국인으로 변성명(變姓名)하여 상하이에 들어간다.⁵⁾

상하이에 도착한 주요섭은 본래 직접 후장대학(滬江大學) 부속중학교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기숙사가 부족하여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쑤저우 안청중학

기타 7편이 있다.

4) 중국어 즉 한위(漢語)를 가리킴.

5) 주요섭, 「안성중학시절」, 『학등』, 한국, 1934. 4, 25~26면.

교(蘇州晏成中學校)를 잠깐 다니고(1921. 4~6.) 다시 후장대학 부속중학교에 입학한다. 6) 1923년 중학을 마친 주요섭은 후장대학에 진학한다. 현 상하이 이공대학(上海理工大學) 전신인 후장대학은 1906년 미국 침례교에서 설립한 학교이다. 설립 초기에는 상하이미션학원(上海浸會學院)으로 불렸으며 양수푸(楊樹浦)의 황푸강(黃浦江) 변에 위치해있었다. 1915년 교명(校名)을 후장대학으로 바꾸었으며 1921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변경하였다.

후장대학은 비록 기독교 학교였으나 학생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았으며 예배도 일요일 오전과 밤 두차례만 보고 학생들의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학업에 대한 요구가 엄했다. 주요섭 재학 당시, 후장대학에는 한국인 학생이 최고로 16명(그중 2명은 여학생)에 달한 때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10명 좌우였다. 한국인 학생 수가 이처럼 적었으나 종래로 한국인이라고 하여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다. 과외활동이나 자치회 임원 선거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7) 이 점에서는 안청중학교 재학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안청중학교에는 10여명의 한국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교장은 한국인학생들을 무척 챙겨주었다. 입학도 시험을 보지 않고 시켜주었으며 가끔은 사재를 털어 학비를 대주었다. 8) 이런 환경은 당시 주요섭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기독교 학교인 후장대학을 계속 다녔으며 또 그가 창작한 많은 작품들이 중국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상하이에서 주요섭은 상당히 균형잡힌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상하이에서 창작한 한 수필에 보면 주요섭은 한국인은 현재 중국인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어린이, 선생님 등을 예로 들어 조금도 한국과 차이가 없음을 지적한다. 9)

후장대학 시절 주요섭의 전공은 ‘영문학’이라는 설과 ‘교육학’이라는 설이

6) 주요섭, 「中國·中國人·民族性」, 『자유』, 한국, 1971. 10, 109면.

7) 주요섭, 「내가 배운 滬江大學」, 『학등』, 한국, 1934. 4, 215~216면.

8) 주요섭, 「안성중학시절」, 『학등』, 한국, 1934. 4, 28면.

9) 주요섭, 「살이 포동포동진 중국어린이」, 『어린이』, 한국, 1926. 1.

공존한다. 주요섭이 훗날 미국에 유학하였으며 또 베이징 푸린대학(輔仁大學) 서양언어문학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기에 ‘영문학’을 전공하였을 것이라는 설이 존재하나 사실 주요섭은 후장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였다. 주요섭이 졸업한 1927년, 후장대학에는 41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이해 53명이 졸업을 하였다.¹⁰⁾ 이중 교육학과에서 10명의 학생이 졸업하였는데 이 졸업생 명단에서 주요섭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¹¹⁾ 교육학을 전공하였기에 이 시기 주요섭은 「결혼생활은 이렇게 할 것」, 「소학생도의 위생교육」, 「공민강화」등 적지 않은 교육이나 계몽(啓蒙)과 관련되는 평론, 논문을 발표하였다.

후장대학에서의 주요섭은 정열적인 학생이었다. 당시 글로리아 스완슨¹²⁾에 심취된 주요섭은 “특대생이었고 영자신문 주간이요, 대학 토론회 때 학년 대표”로서 “모든 학생의 흠모의 대상”이었다.¹³⁾ 당시 중국 5천미터 달리기

10) 上海理工大学志编纂委员会, 《上海理工大学志》, 中國, 高等教育出版社, 2006, 10頁.
11) 1927屆：(政治)：邱培豪 朱启勋 朱舜琴 方锡粵 龚治 厉昭 徐世俊 王显纳 俞培均 (社会)：鲍毓璋 陈敬豪 张凤桢 (倪徵嫫夫人) 郭兴熊 聂文杰 秦善林 王橘芬 王宏业 吴启道 叶莲芳 冯志 (教育)：陈熙麟 朱耀燮 (朱耀翰的弟弟, 韩国人) 周咏梅 蒋迪灿 洪如圭 骆之骏 徐剑缘 申莹澈 屠桂林 王素贞 (理科)：朱曾徵 谷延犹 李廉声 刘泽永 蔡其寿 蔡辉甫 马恩德 乔文寿 (工业化学)：范维 朱毅 (商业管理)：陈德棻 陈德舆 朱洁华 黄保廉 凌宪扬 钱德福 戚德存 王湘林 (未详)：鲍之淦 狄济鑫 孙瑞麟 严万里 尹哲雄

상기 명단은 “淌过秋浦河(<http://blog.sina.com.cn/w2471>)”라는 이름의 중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많은 후장대학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각주 11에서 인용한 《上海理工大学志》에 명기된 1927년 졸업생 수와 이 홈페이지에 있는 졸업생 수가 일치한 것으로 보아 이 자료는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이어령이 정리한 주요섭 전기를 보면 주요섭은 후장대학 시절 동창생 신영철(申永澈), 동급생 헨리링(林憲揚) 등과 가까이 보냈다고 한다. 특히 헨리링과는 기숙사의 2인용 방에서 졸업 때까지 3년간 같이 기거했다고 한다. (이어령, 「주요섭」, 『한국작가전기 연구(하)』, 한국, 동화출판공사, 1980, 144~145면 참고.)

신영철과 헨리링의 이름도 위의 1927학번 졸업생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한자가 한글자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글자가 중국어 발음은 대략 일치한 점으로 보아 동일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다.

12) Gloria Swanson(1897~1983)는 미국 여배우로서 무성 영화시대의 코미디언이며 유성 영화시대에는 극적인 여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할리우드 화려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경주 기록 보유자였던 주요섭은 1925년 5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극동올림픽대회에 중국팀을 대표하여 참가하여 1만미터 달리기 경주에서 3등을 하여 중국 신문에 크게 실리기도 하였다. 14)

주요섭은 후장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상하이 한인 사회에서도 활발히 활약하였다. 당시 주요섭은 상하이한인유학생회(上海韓人留學生會), 상하이한인청년회(上海韓人青年會) 등 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화동한국유학생회(華東韓國留學生會)에서는 사무위원(庶務委員)을 맡기도 하였다. 15)

상하이 시기 주요섭의 사회활동에서 특히 주목할 바는 흥사단 원동지부(興士團遠東支部)에도 참여한 것이다. 흥사단이란 1913년 안창호(安昌浩: 1878~1938)의 주도로 미국 샌프랜시스코에서 결성한 민족운동단체이다. 1919년 3·1운동으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하이에 원동지부를 내왔다. 1921년 상하이에 도착하여 바로 흥사단에 가입한 주요섭은 흥사단 144호 단원이었으며 후장대학 학생 위주로 구성된 흥사단 원동지부 제18반 반장이었다. 16) 당시 주요섭의 “앨범 첫페이지에는 도산¹⁷⁾ 선생의 사진이 있었고 그 밑에는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¹⁸⁾

주요섭은 흥사단 원동대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이 대회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습관」(1922), 「마르크스와 우리」(1924), 「민족개조는 가능한가」(1925), 「민족주의와 사회주의」(1925) 등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19) 강연문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제목으로 보아 민족주의 단체 흥사단의

13) 피천득, 「여심」, 『인연』, 한국, 샘터, 1996, 192면.

14) 주요섭, 「내가 배운 滬江大學」, 『사조』, 한국, 1958. 11, 216면.

15) 「화동유학생회 내용을 쇄신 기관잡지도 발간」, 『동아일보』, 한국, 1924. 9. 28.

16) 주요섭의 흥사단 가입은 그에 앞서 이미 상하이에서 흥사단에 가입한 형 주요한(1919년 5월에 상하이에 갔으며 1920년 2월에 입단했다. 104호 단원)과 관계되는 것 같다. 흥사단 가입뿐만 아니라 주요섭의 전반 인생은 주요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17) 도산(島山)은 안창호의 호이다.

18) 피천득, 「여심」, 『인연』, 한국, 샘터, 1996, 192면.

19)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Main/Main.jsp>)의 ‘원문정보’ 참고.

주의와 주장을 다룬 것으로 추정된다.

상하이 시기 주요섭의 의식세계를 추적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모태신앙인 기독교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임이다. 주요섭은 1902년 평양 신양리(新陽里)에서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 주공삼(朱孔三)과 어머니 양진심(梁鎭心)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로 미루어보아 ‘요섭’이라는 이름도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셉(Joseph)’과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주요섭은 기독교를 모태신앙으로 갖고 있지만 상하이에 와서는 기독교를 부정한다.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창작한 「천당」, 「첫사랑값」 등 작품은 강렬한 반기독교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사회주의이다.

당시 주요섭은 민족주의 단체 홍사단에서 활약했지만 그의 사상적 경향은 사회주의에 더욱 기울어져 있었다. 홍사단 내부에서 주요섭을 비롯한 일파(一派)는 ‘실력양성론’에 반기를 들고 사회주의로 이행하여 직접적 혁명운동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⁰⁾ 상하이 시기 주요섭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상하이 5·30사건’과 ‘북벌군의 상하이 진주사건’을 회억하여 쓴 글들에서도 주요섭이 사회주의에 공감하였음을 보아낼 수 있다. ‘5·30사건’ 당시 주요섭은 후장대학 학생들과 함께 상하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총동맹파업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였으며 ‘북벌군의 상하이 진주사건’ 당시에는 장제스(蔣介石: 1887~1975)가 공산당을 탄압할 때 후장대학에 있는 공산당원들의 피신을 도왔다. 그리고 이때 자신이 갖고 있던 근 50권의 좌경사상서적을 불살라버렸다.²¹⁾

주요섭의 사회주의적 경향은 상하이 시기에 창작하거나 번역한 희곡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긴밤 이후에는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는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긴밤」(『동광』, 1927. 7.)은 중국과 러시아 변경을 무대로 하며 작품의 주인공은 자신의 집에 레닌의 초상을 걸어놓기도 한다. 그리고 주요섭이

20)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3)』, 한국, 한길사, 1986, 840면 참고.

21) 주요섭, 「상해관전기」, 『삼천리』, 한국, 1932. 3.

주요섭, 「1925년 5·30」, 『신동아』, 한국, 1934. 5.

주요섭, 「내가 배운 호강대학」, 『사조』, 한국, 1958. 11.

번역하여 한국에 발표한 「토적군(討赤軍)」(『동광』, 1926. 11.)은 군벌싸움의 중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공산당을 찬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1927년 6월 주요섭은 상하이에서 중국 여권을 갖고 미국으로 떠난다. 여권을 내기 위하여 1927년 봄 주요섭은 중국 시민으로 입적하여 ‘귀화증’을 땀다. 이 ‘귀화증’은 1943년 봄 중국 베이핑(北平) 주재 일본 영사관 경찰서 특고계 형사에게 압수당했다.²²⁾

3. 기독교 부정과 민중의 삶에 대한 천착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발표한 첫 작품은 「추운 밤」(『개벽』, 1921. 4.)이다. 상하이 도착 초기 “당지 신문보도에 힌트를 얻어 창작”²³⁾한 이 소설은 어머니의 병환이 아버지의 음주벽(飲酒癖) 때문이라 생각한 병서가 술독을 깨뜨리고 돌아와 어린 동생과 함께 죽는 우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열세살 소년 병서는 어머니의 병환의 근원은 아버지에 있으며 아버지의 음주벽의 근원은 술에 있다고 생각하고 술과 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부정, 비판한다. 병서를 주인공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주요섭은 작품 속에 또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어머니의 시각을 투입시킨다. 어머니는 여러 차례나 “결코 너의 아버지를 원망치 마라”고 병서에게 부탁하며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누구인가”는 의문을 제기한다. 작품은 비록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문 제기만으로도 현실에 대한 부정과 민중의 삶에 대한 주요섭의 관심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이 점에서 「추운 밤」은 친구의 여동생에 대한 짝사랑을 다룬 처녀작 「이미 떠난 어린 벗」과 분명히 다른 경향의 작품이다.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작품이 이 길을 걷고 있다.

22) 주요섭, 「다시 타향에서 들여다본 조국」, 『신동아』, 한국, 1964. 10, 64면.

23) 주요섭, 「재미 있는 이야기군」, 『문학』, 한국, 1966. 11, 198면

「추운 밤」은 주요섭의 변화된 창작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지만 아직도 이야기의 구성이나 전개,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는 많은 미숙함을 보인다. 「추운 밤」 발표 이후, 주요섭은 「죽음」²⁴⁾(『신민공론』, 1921. 7.), 「해와 달」(『개벽』, 1922. 10.) 등 한국의 전래이야기를 번안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문학 공부를 해오다 1924년부터 소설, 시, 희곡, 평론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창작하기 시작한다.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창작한 두 번째 소설은 「인력거꾼」(『개벽』, 1925. 4.)이다. 주요섭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인력거꾼」은 “후장대학 2학년 재학 때 사회학 교수의 지도로 인력거꾼의 합숙소 현지 조사연구에 나갔다가 너무나 심한 충격”²⁵⁾을 받고 쓴 소설이다. 작품이 아쟁이의 극히 비위생적인 거주 지역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주요섭은 인력거의 대여에서부터 부동한 신분의 손님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하여 상하이 인력거꾼의 일상을 꺾진하게 보여준다.

작품의 전반부가 이처럼 아쟁의 일상을 통하여 상하이 하층민의 생활 모습을 그려내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후반부는 아쟁이로 대표되는 하층민의 내면 세계를 부각시킨다. 이 내면세계는 기독교라는 매개를 통하여 더욱 분명해진다. 병원에서 아쟁이는 기다리는 의사는 만나지 못하고 대신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현실세계에서 힘든 삶을 사는 하층민이나 권세와 향락을 누린 상층민이나 죽은 후 모두 천당에 간다는 기독교의 교리는 아쟁이가 생각하는 ‘공평의 원칙’과 어긋난다. 때문에 아쟁이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미래의 큰 행복을 부정하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좀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염원을 갖게 되나 이것마저 실현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아쟁이가 죽은 이튿날 동거자인 똥똥보가 또다시 인력

24) 대부분의 주요섭 소설 목차에서는 「죽음」을 창작소설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전래이야기를 번안한 것이다. 발표 원문을 보면 작품의 말미에 “이거슨朝鮮傳來니야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참고 「해방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민족문학사연구』 39호, 한국, 민족문학사학회, 2009. 4.)에 부록으로 제시한 해방전 주요섭 소설 목차에도 「죽음」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25) 주요섭 「나의 문학적 회고-재미 있는 이야기꾼」, 『문학』, 한국, 1966. 11, 198면.

거를 끌며 그도 몇 년 후에는 아쟁이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서술을 통하여 주요섭은 아쟁이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 죽음이 아닌 최하층 민중의 공통한 운명임을 시사한다.

「인력거꾼」은 하층 민중의 삶에 대한 천착이라는 측면에서 「추운 밤」을 계승하는 동시에 반기독교라는 측면에서 또 이시기 주요섭 의식세계의 다른 한 면을 보여준다. 상하이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부정한 주요섭은 민중의 지난한 삶을 보여주거나 민중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데 기독교적 소재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천당」(『신여성』, 1926. 1.)은 주요섭의 반기독교적 정서와 사회주의 의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가난뱅이 나사로는 성경에 씌인 “웬세는 하나님피로 나지아님이업나니 모든사람은 웬세에잇는웃사람에게굴복하라”, “부자가 하늘에오르기가 약대가 바늘귀로들어가기보다 더힘든다”는 말을 명기하고 현실세계에서 학대받는 거지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특히 신약 성서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심취한 비렁뱅이는 자신의 이름도 나사로로 고치고 개와 함께 밥을 먹는 등 ‘나사로의 이야기’를 직접 자신의 몸으로 실천해나간다. 이렇게 하면 죽은 후 천당에 가서 향락할 것이라 믿어오던 비렁뱅이는 그러나 천당에서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천당의 문은 자신과 같은 하층 민중에게는 굳게 닫혀 있고 지상에서 향락하던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에 비렁뱅이는 인력거꾼, 지게꾼, 탄광부 등 인간세상에서 혁명을 일으키다 죽은 하층 민중들과 함께 한 청년의 인도에 따라 천당에 불을 지른다.

「천당」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섭은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천당’을 ‘天上의虛國’으로 규정하며 이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섭은 민중을 이끌어 천당에 불을 지르는 청년 지도자라는 인물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인이 로농대중을 투쟁으로 이끈다는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이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론은 「천당」에 앞서 발표된 「선봉대」(『개벽』, 1924. 10.)라는

평론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선봉대」에서 주요섭은 노동자를 ‘선봉대’라고 하며 학생들은 그들의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천당」에서 인용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시기 주요섭의 문학 창작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천당」에 이어 발표된 소설 「개밥」(『동광』, 1927. 1.)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모태로 한다. 「개밥」은 부잣집 어머므로 있는 단성이 어머니가 ‘흰밥에 고깃국’을 먹겠다는 죽어가는 딸 단성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주인집의 서양개와 싸우는 이야기이다. 주인집에서 기르는 바둑이라는 서양 사냥개는 매끼마다 ‘흰밥에 고깃국’을 먹는다. 그것도 서양개가 우유를 안 먹고 ‘흰밥에 고깃국’을 먹는다고 칭찬을 듣고 있다. 하지만 어母的 딸 단성은 ‘흰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소원이다. 사냥개가 어릴 적에는 개가 남긴 먹이를 단성이 먹 수 있었으나 사냥개가 커가면서 식량이 늘어나자 이제 단성이 먹 수 없게 된다. 작품은 날로 살찌가는 사냥개와 영양부족으로 날로 여위여가는 단성의 대비를 통하여 부잣집 개만도 못한 하층 민중의 삶을 꺾진하게 보여준다. 작품의 말미에 죽어가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사냥개의 밥그릇에서 ‘흰밥에 고깃국’을 뺏어오는 장면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성경에서 ‘나사로’가 평화롭게 개와 밥을 나누어 먹던 이야기는 현실에서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하층 민중의 생활로 재탄생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과 민중의 삶에 대한 동정과 관심으로 변화된다.

주요섭의 민중의 삶에 대한 천착은 단지 이들의 지난한 삶을 보여주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다. 주요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민중의 내면에 숨겨진 인간다운 삶에 대한 동경도 그렸다. 상하이 시기 주요섭의 또 다른 대표작인 「살인」(『개벽』 1925.06)이 바로 이런 작품이다. 「인력거꾼」이 생계를 위해서는 육체를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인력거꾼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면 「살인」은 생계를 위해서는 육체를 팔지 않을 수 없는 창녀를 주인공으로 한다. 일부 논자들은 주인공 우쁜의 고향이 ‘湖南’으로 나오니 「살인」은 한국 전라도 여성이 상하이에 팔려가 창녀 생활을 하는 것을 그렸다고 본다. 그러나 소설 속의 우쁜은 중국인으로

서 중국 후난성(湖南省)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우뽀라는 이름도 그렇지만 우뽀가 고향에서 “수십명먼동리갓가운동리처녀들과함께백리나되는길을 거러나와생전처음으로보는기차를타고上海까지와”다는 데서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 한국의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와 창녀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겠지만 몇십명씩 전라도로부터 상하이까지 그것도 기차를 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주요섭이 이시기 자신이 창작하는 대부분 소설의 주인공을 중국인으로 설정하고 있음도 이에 무게를 더해준다. 26)

「살인」의 주인공 우뽀는 극심한 기근에 쫓긴 부모에 의하여 양귀자(洋鬼子)²⁷⁾에게 팔려 정조를 잃으며 끝내는 상하이에 와 창녀가 된다. 3년간 묵묵히 창녀 노릇을 해오던 우뽀는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자신의 집 앞을 지나다니는 한 청년을 발견하고 이 청년을 짝사랑하게 되며 또 이 사랑은 우뽀의 자의식을 자극하여 자신의 신분과 행위를 반성하게 한다. 주인할미가 우뽀에게 강제로 손님을 받게 하는 것을 계기로 우뽀는 여직껏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해온 사람은 주인할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급기야 주인할미를 칼로 찔러 죽이고 유곽에서 뛰쳐나온다.

주요섭은 ‘사랑’이라는 매개를 빌어 우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추구를 그려냈다. 이는 주요섭이 더는 민중을 하나의 ‘관찰의 대상’,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가능성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중을 이처럼 자의식의 획득과 반항의 가능성을 가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주요섭이 받아들인 사회주의 이론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들에게 이런 인간다운 삶에 대한 추구가 있기에 주요섭이 「천당」이나 「선봉대」에서 말하는 지식인에 의한 로농대중의 계몽과 투쟁이 가능한 것이다.

하층 민중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추구라는 측면은 「영원히 사는 사람」에서

26) 상하이에서 주요섭은 도합 7편의 소설을 창작하였다. 그중 「추운 밤」, 「천당」, 「개밥」은 그 배경을 한국으로 보아도 괜찮겠으나 나머지 네편의 작품 즉 「인력거꾼」, 「살인」, 「첫사랑값」, 「영원히 사는 사람」은 배경이 중국이며 주인공도 중국인이다.

27) 동양(東洋) 사람이 서양(西洋) 사람을 가리켜 부르던 말이다.

보다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중국 북방의 한 작은 기차역인 랜산(蓮山)역²⁸⁾ 기수 아씨가 기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랜산역을 점거한 마적들은 기차를 탈선시키고 승객들의 재물을 약탈하려 한다. 이에 기수인 아씨는 “‘사람’이라는 이 인생의 책임”을 위하여, 그리고 기차에 타고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신호를 보내며 멀리에서 이 신호를 접한 기차는 멈추어섰다가 다시 되돌아간다. 아씨는 비록 마적의 총에 맞아 죽지만 “그 죽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영원히 사는 사람」에서 주요섭은 민중을 ‘대아(大我)를 위하여 소아(小我)를 희생’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 오면 민중은 ‘가능성의 대상’에서 아름다운 내면을 지닌 ‘긍정의 대상’으로 승화된다. 그리고 이런 ‘긍정의 대상’으로서의 주인공이 중국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바이다. 한국의 근현대문학 작품에 나오는 중국인은 대부분이 부차적인 인물이거나 부정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창작한 소설은 절반 이상이 중국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비롯한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창작한 소설들은 한국 근현대문학의 배경 확장과 인물의 다양화에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주제의 다양화와 기교에 대한 탐구

상하이 시기, 주요섭이 민중의 삶을 소재로 하여 강한 사회성을 지닌 작품 창작에 주력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예외도 있다. 상하이에서 창작한 유일한 중편소설인 「첫사랑 값」(『조선문단』 1925. 9. ~11, 1927. 2. ~3.)이 바로 그렇다.

28) 오늘날의 베이징(北京)과 선양(沈陽)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이중에서 베이징과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첫사랑 값」은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처녀작 「이미 떠난 어린 벗」과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사랑’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미 떠난 어린 벗」이 편지를 속이야기로 하는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했다면 「첫사랑 값」은 일기를 속이야기로 갖고 있는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요섭이 훗날 베이징에서 창작한 대표작 「사랑 손님과 어머니」(『조광』 1935. 11.)가 어린이의 시선을 빌어 어른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점을 염두에 두면 「첫사랑 값」은 처녀작 「이미 떠난 어린 벗」과 대표작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잇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요섭은 시종 ‘사랑’이라는 주제와 기교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첫사랑 값」에서 일기의 주인공인 유경이는 중국 상하이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다. N이라는 중국인 여학생을 사모하는 유경이는 N과의 연애 여부를 두고 격렬한 심리적 갈등을 계속하다 평양으로 돌아와 유치원 교사 K와 약혼하지만 시종 N을 잊지 못한다. 예고된 마지막 회가 실리지 않아 유경이가 자살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그간의 경과를 알 수 없으나 유경이가 유품으로 남긴 일기책을 읽고 있는 액자 밖의 서술자 김만수의 시선에 의하여 유경이가 거대한 고민과 번뇌 속에서 죽어갔음이 나타난다.

한국인 유학생 유경이는 중국인 여학생 N과 연애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그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애는 결혼(結婚)을 그목덕으로하지안이하면안이된다 결혼 연애를 선조로하지안으면안이되는것갓치 엘렌케이가말한바련애가업슨 결혼은간음이라는 것을 시인한다구하면 결혼을무시하는련애는 또한 간음에지나지안는다 안이육테보다 정신이더귀한덤으로보아서 결혼을데외시하는련애는 련애업는 혼인보다 더큰죄악일다
그러면 나는 그N씨와결혼할가능성이 잇는가? 결혼할 가능성이업시 련애의계속을 내버려두는것은 나는못할노릇일다²⁹⁾

유경이는 연애는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며 결혼 또한 연애를

29) 주요섭, 「첫사랑 값」, 『조선문단』, 한국, 1925. 10, 43면.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유경이는 자신이 N과 결혼 할 수 없는 이유를 ‘국가’, ‘민족’, ‘경제’ 등에서 찾는다. 유경이는 “현금의 조선은 비상한 시기에 처하여” 있기에 한국의 청년들도 비상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유경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이나 서북간도로 가서 한국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중국인 며느리가 한국인 시부모와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자신처럼 박봉(薄俸)을 받을 사람은 N과 같은 귀족적인 여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 일년간의 일기로 이루어진 소설은 조금은 지루할 정도로 상기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연애를 지연시키며 주인공은 또 이 때문에 깊은 고민과 번뇌에 빠진다.

「첫사랑 값」에 나타난 이런 유경이의 연애관, 결혼관은 곧 주요섭의 연애관, 결혼관이기도 하다. 엘렌 케이의 연애관, 결혼관을 받아들인 주요섭은 「첫사랑 값」을 발표하기 일년여 전에 이미 「結婚生活은이러케할것」(『신여성』, 1924. 5.), 「결혼생활에要하는三大條件」(『신여성』, 1924. 5.) 등 평론을 통하여 자신의 연애관과 결혼관을 피력하는데 이것이 「첫사랑 값」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주요섭과 한동안 상하이에서 함께 생활한 피천득(皮千得: 1910~2007)의 회억에 의하면 주요섭은 상하이에서 한 중국 여학생과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타고 남은 마음이란 뜻의 여심(餘心)이라는 아호를 지었다고 한다.³⁰⁾ 주요섭은 ‘여심’이라는 호를 사용하여 적지 않은 작품을 발

30) 피천득, 「여심」, 『인연』, 한국, 샘터, 1996, 194면.

이어령이 정리한 주요섭의 전기를 보면 “호 餘心은 그의 성격이 몹시 급한지라 모친이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뜻으로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호감을 가졌었다는 여성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耀燮은 집안이 기독교 가정이라 무척 엄격하고 행동이 단정하였다. 그가 결혼하기 전 滬江大學 시절에 中國人 林氏형제와 胡양이 함께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들 넷은 대학 남녀 학생 혼성음악단의 단원이었다. 胡양은 음악대학에 다녔다. 헨리는 피아노, 조지는 바이올린을 다루었다. 그들은 한 학기에 두 번 있는 정기연주회에 대비하여 매일 몇시간씩 함께 연습하였다. 濶州가 고향인 林氏 형제가 집으로 가고 武昌이 고향인 胡양과 耀燮이 기숙사에 남아 있게 되었다. 耀燮은 胡양을 에스스코트해 주고 강변

표하였는데 그 첫 작품이 바로 「첫사랑 값」에 뒤이어 발표된 소설 「천당」이다. 그리고 「첫사랑 값」의 주인공 이름 ‘유경’은 주요섭의 고향인 평양의 옛이름이기도 하며 작품에 나오는 ‘상하이 5·30사건’의 모습과 그 속에서 유경이가 행한 일련의 행동은 훗날 주요섭이 여러 회역성적인 글에서 다룬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다. 31)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첫사랑 값」은 주요섭의 자서전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첫사랑 값」은 1924년 8월부터 1925년 7월 사이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며 중국 상하이(1924. 8. 28. ~1925. 6. 20.)와 한국 평양(1925. 6.25. ~1925. 7. 22.)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중 상하이 부분은 자서전적인 글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첫사랑 값」은 주요섭의 연애관, 결혼관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시기 주요섭의 의식세계를 규명하는데도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작품 속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지식인의 역할 등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벌서삼년동안 나는기도라는것을 전폐하지안엇는가? 벌서삼년전에 이십여년이나밧던(날째부터미뎃스니까)종교라는것이 무가치한넘가의위 안물인것을깨다른이래 나는종교가들을저주해오지안엇는가?...중략...마침내나는이것다 나는기도안이하고겡뎃다 삼년동안절조를깨틀지안엇다 내주의에관철했다³²⁾

나는정신업시 밤에 황해하는 배들 길을 인도해주노라고 수이지안코 켜 져다꺼져다하는 등대불을바라보고 잇었다. ...중략...어두운속에 색감안 속에 홀노서서 그밝은 불빛을 동서사방 한곳도 빼이지안코 두루々々보 내여큰배적은배 이나라배 남의 나라배 룬선 풍선 할것업시 모-든배들과

에 위치한 滬江大學의 달이 비치는 갈대숲의 낭만적인 풍경을 함께 즐겨 걷곤 했다. 耀燮는 다만 기사도 정신에 입각한 에스콧트라고 말하지만 후배 皮千得이 전하는 말로는 그가 胡양에게 戀情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胡양의 집에서 한국인이라 하여 반대했다고 한다.”(이어령, 「주요섭」, 『한국작가전기연구(하)』, 한국, 동화출판공사, 1980, 144~145면.)

31) 주요섭, 「1925년 5·30」, 『신동아』, 한국, 1934. 5.

주요섭, 「내가 배운 호강대학」, 『사조』, 한국, 1958. 11.

32) 주요섭, 「첫사랑 값」, 『조선문단』, 한국, 1925. 10, 42면.

배사공들에게 희망과 참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저불이야 말로 얼마나 귀한것이고 아름다운것인가!...중략...아! 나는 왜 저 등탑불이 되어볼수는 업는가 어두운하늘에 혼자서서 아무구별 아모가림업시 던하모-든사람을 모다한결갓치사랑하여 그들에게 빛을주고 희망을주고 안전한길을 열어주게될수는 왜업는가! 아! 그것이되어야한다³³⁾

「첫사랑 값」에서는 종교를 “무가치한 염가의 위안물”이라고 한다. 이는 「인력거꾼」, 「천당」등 작품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지식인의 등대적 역할은 「천당」, 「선봉대」등 작품들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서 주요섭의 사회주의적 의식의 작품화라고 볼 수 있겠다.

5. 결론

주요섭은 해방전 상하이에서 창작활동을 가장 활발히 진행한 한국인 문인이다. 1921년 3월 상하이에 온 주요섭은 쑤저우 안청중학교, 후장대학 부속 중학교를 거쳐 1923년 후장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하였다. 주요섭은 후장대학에서 여러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두각을 나타냈으며 상하이 한인 사회에서도 활발히 활약하였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당시 주요섭은 흥사단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모태신앙인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다. 동시에 주요섭은 문학 창작에서도 풍성한 성취를 거두었는데 소설, 시, 희곡, 평론 등 여러 장르에 걸쳐 28편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창작한 대부분의 소설은 하층 민중의 지난한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민중이 갖고 있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추구까지 그려내고 있다. 상하이에서 창작한 첫 작품 「추운 밤」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민중의 삶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인력거꾼」, 「천당」, 「개밥」, 「살인」, 「영원히 사는 사람」등 작품으로 이어진다. 상기 작품을 통하여 주요섭은 민중을 더

33) 위의 책, 35면.

는 단순한 ‘동정의 대상’으로만이 아닌 ‘가능성의 대상’, ‘긍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중의 지난한 삶에 대한 반영은 또 기독교에 대한 부정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인력거꾼」, 「천당」, 「개밥」 등 작품은 기독교는 “무가치한 염가의 위안물”이라는 주요섭의 당시 인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주의자 주요섭에게 있어 민중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자아안위’가 아니라 지식인에 의한 로농대중의 조직적인 투쟁이었다.

민중의 삶을 소재로 하여 강한 사회성을 지닌 작품 창작에 주력함과 동시에 주요섭은 처녀작에서 보여준 ‘사랑’이라는 주제와 창작기교에 대한 탐구도 멈추지 않았다. 상하이에서 창작한 유일한 중편소설인 「첫사랑 값」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첫사랑 값」은 자서전적인 작품으로서 이시기 주요섭이 갖고 있던 연애관과 결혼관을 포함한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구인 동시에 처녀작 「이미 떠난 어린뱃」과 대표작 「사랑 손님과 어머니」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주요섭이 상하이에서 창작한 소설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주요섭은 상하이에서 시, 희곡, 평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런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주요섭의 상하이 시기 문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시기 상하이에서 활약한 중국인 작가들과의 비교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문단』 『동광』 『신여성』 『개벽』 등 한국의 신문, 잡지.
- 강지희, 「상해와 근대문학의 도시 번역-주요섭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한국, 이화어문학회, 2011.
- 구인모,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 12호, 한국,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 김중호, 「김광주론-상해 조선인 사회의 현실 비판과 자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호, 한국,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 김호웅, 「1920~30년대 한국문학과 상해」, 『현대문학의 연구』 23호, 한국,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 손과지, 『상하이한인사회사』, 한국, 한울, 2001.
- 손지봉, 「1920~3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상해의 의미」, 한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승하, 「주요섭 초기작 중 상해 무대 소설의 의미」, 『비교한국학』 17권 3호, 한국,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 이주미, 「주요섭 소설 연구」, 한국,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장동천, 「수필작가 피천득의 상하이 상상과 창작의식」, 『중국어문논총』 50호, 한국, 중국어문연구회, 2011.
- 장영우, 「한국 근대소설사의 결락과 보완」, 『사랑손님과 어머니』, 한국, 문학과지성사, 2012.
-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상해」, 『한국언어문화』 36호, 한국,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진녕녕, 「주요섭 작품의 비판적 분석」,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 천성림, 「모성의 발견-엘렌 케이와 1920년대의 중국」, 『동양사학연구』 9권 2호, 한국, 동양사학회, 2004.

- 최병우,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5호, 한국, 한중인문학회, 2008.
- 최학송, 「해방 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39호, 한국, 민족문학사학회, 2009.
- 한점돌, 「주요섭 소설의 계보학적 고찰」, 『국어교육』 103호, 한국, 한국어교육학회, 2000.
- 황춘옥, 「'상해'를 배경으로 한 한국근대소설 연구」, 한국,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上海理工大学志编纂委员会, 《上海理工大学志》, 中國, 高等教育出版社, 2006.

<Abstract>

Juyo-seop's literature and life in Shanghai

Cui Hesong

Before the liberation, Juyo-seop is one of the most active Korean literati in Shanghai. In order to attract the attention of society, he joined “Xing” group of education department of Hujiang University and denied Christianity. During his stay in Shanghai, he achieved fruitful results in literature: a total of 28 pieces of works in different genres such as fictions, poetries, drama and reviews.

Most fictions created by Juyo-seop in Shanghai expose the poor life of the grass roots, and also outline a vision of the good life in the future to the masses. Besides the first work Cold Night created in Shanghai, the other works revealing the grassroots life are Rickshaw Pullers, Paradise, Dog Food, Murder and Eternal Life.

Both poor life of the masses and denial of Christianity appear in his works at the same time. In Rickshaw Pullers, Paradise, and Dog Food, he mainly expresses the idea that Christian is “worthless and cheap comforts”.

Based on life of the grass roots, Juyo-seop creates works with a strong sense of social reality. Meanwhile, his first piece of work voices the theme “love” and manifests his search for creation techniques. His only novella created in Shanghai-First Love is a good illustration in this aspect.

Key Words : Juyo-seop, Shanghai, the masses, Christianity, Socialism

투 고 일 : 2013. 1. 7. / 심 사 일 : 2013. 1. 20. ~ 2013. 2. 10. / 게재확정일 : 2013. 2. 17.